

'19명의 주인공' 시대를 웃기고 울리다

광주일보 시사만화 55년

광주일보 시사만화와 만평은 55년 동안 지역민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눈물, 그들의 웃음을 대변하는 비판과 저항, 그리고 해학의 '그림마당'이었다.

본보 첫 연재만화는 1954년 3월3일 '뽀뽀'였다.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별다른 볼거리가 없던 지역민들은 10대 소년 '뽀뽀'의 좌충우돌에 배고픔을 잊고 희망의 악을 키워나갔다.

광주일보 시사만화는 경찰의 폭력 진압을 날카롭게 꼬집다가, 아예 삭제된 채 신문이 발행되기도 했다(1960년 4·19혁명 당시 '우주시대'), "아~아~ 잊으라 어찌 그날을"이라며 5월의 아픔을 지역민과 함께했다.(1980년 5·18당시 '미나리여사')

이승(李承)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젊음이 달려온 광주일보 시사만화는 순바닥으로 그려질 만큼 작은 지면이지만 가만히 있어도 주머니를 뚫고 비어져 나오는 세상을 위한 '송곳'이었다.

◇피를 흘리는 노력이 맺은 결실=흔히 말하는 4컷 만화(연재만화)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사회성을 담고 있어 사회면에 실린다. 30초에서 1분여 동안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과 웃음을 전해주기 위해 시사만화가들은 피를 흘리는 창작의 고통을 견뎌내야 했다. 본보의 시사만화는 지난 55년 동안 12명의 시사만화가에 의해 19명의 만화 주인공을 탄생시켰다. 연재만화 속 주인공들은 24년 동안 장수하거나 탄생한 지 이틀 만에 요절하기도 했다.

첫 연재만화 주인공은 6·25 전쟁이 끝난 암울한 시대상을 조금이라도 밝고 희망차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천방지축의 꿈많은 10대 청소년 '뽀뽀'였다. 천백원 화백의 '뽀뽀'는 첫 회에 길바다에 실로 묶은 지갑을 떨어뜨려 놓고 지나가던 정치 후보자가 이를 몰래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

첫 주인공 '뽀뽀' 광주·전남 '희망지기'

자 "인후보자가 시험에 낙제"라고 골탕을 먹인다. '뽀뽀'는 그해 26회를 끝으로 퇴장했다.

이어 임병성 화백은 '미쓰 장미', '건다리 행장기', '우주시대'를 66년까지 연재하며 시사만화의 틀을 다졌다. '건다리'는 사회문제였던 '간담'을 '우주시대'는 미국과 소련의 우주개발 경쟁을 상징한 것이었다.

'고주사'(한성철)와 '맹주사'(안의섭)는 '우주시대'와 함께 연재돼 독자로부터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콧수염과 둥근 데 안경이 웃음을 자아내게 했던 '맹주사'는 말단 영업 사원의 애환을 그려냈다.

동물 발명을 가진 주인공들도 많았다. '너구리'(김봉천), '개구리'(김선정), '자라군'(김성인)이 한 시대를 풍미했다.

1980년 광주일보 시대가 열린 뒤 첫 연재만화는 '오기로 선생'·'오목이 선생'(윤영욱)이었다. 이어 김종두 화백의 '나원참'이 83년 7월2일부터 현재까지 24년여 동안 장수하



광주일보 역대 만화 주인공들

뽀뽀	천백원 1954. 3. 3~1954. 4. 4 (26회)	세상참 先生	정운경 1968. 8. 15~1969. 6. 17 (244회)
미쓰 장미	임병성 1954. 4. 12~1954. 5. 18 (17회)	우주시대	임병성 1969. 6. 18~1969. 9. 10 (119회)
맹주사	임병성 1955. 4. 30~1955. 5. 10 (5회)	뽀뽀	부석연 1969. 9. 11~1970. 7. 1 (162회)
우주시대	임병성 1959. 1. 1~1966. 11. 29 (4418회)	자라군	김성인 1970. 7. 2~1973. 1. 11 (1036회)
고주사	한성철 1962. 8. 15~1963. 5. 31 (191회)	개구리	김선정 1973. 2. 1~1973. 7. 27 (150회)
맹주사	안의섭 1963. 8. 1~1964. 10. 11 (294회)	미나리여사	이홍우 1973. 7. 28~1980. 11. 25
너구리	김봉천 1967. 1. 1~1967. 12. 31 (302회)	오기로 선생	윤영욱 1980. 12. 1~1980. 12. 2 (2회)
고구마	이홍우 1968. 1. 1~1968. 5. 30 (110회)	오목이 선생	윤영욱 1980. 12. 4~1981. 12. 30 (331회)
하영선	신순식 1968. 6. 1~1968. 7. 2 (26회)	안다니	김성인 1982. 1. 1~1983. 5. 30 (420회)
독배기	박동일 1968. 7. 3~1968. 8. 14 (34회)	나원참	김종두 1983. 7. 2~현재

고 있다.

◇만화보다 웃기는 '만화 수난사'=강렬한 비판정신과 풍자 때문에 만화보다 웃기는 '만화 수난사'도 겪었다.

60년 4월 21일자 '우주시대'는 경찰의 강경 시위 진압을 꼬집었다. 처음에는 맨몸으로 진압하던 것을 곤봉, 소방차, 비행기·대포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만화는 아예 들어내진 채 백지 상태에서 발행됐다.

이에 임병성 화백은 22일과 26일치 만화에서 문봉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주인공의 모습과 새장에서 새를 꺼내 날려보내주는 모습을 말(지문) 없이 그림으로만 보여줬다.

임 화백은 당시의 폭압적인 시대상에 대해 '말 없는 저항'을 통해 독자와 함께 울분을 삭히곤 했다. 이를 눈치

정부 압력에 백지상태 발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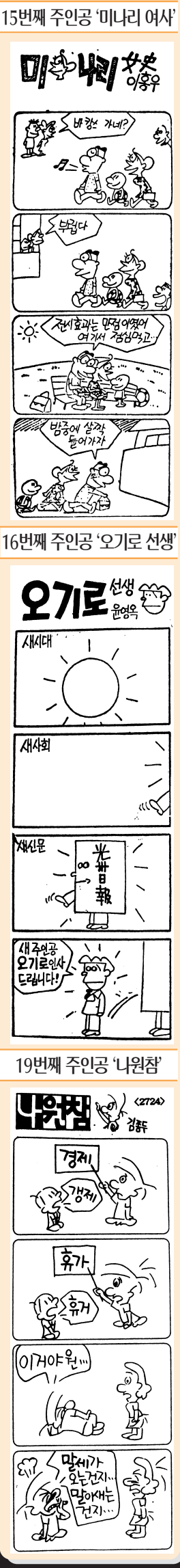
챌 당국은 지문을 날도록 여러 번 압력을 넣기도 했다.

5·18민주화 운동 당시 '미나리 여사'(이홍우)는 TV 권투중계를 보면서 "주먹은 세고 불 일이야"라며 19일자로 권력의 폭력성을 비판 데 이어 20일자에도 주인공 미나리 여사가 술을 마시고 애매우는 모습을 그렸다.

하지만, 21일부터 신문발행이 중단돼 그나마도 표현하기 힘들었다. 6월2일 신문발행이 재개된 뒤 5일자에 미나리 여사는 '6·25 노래'의 가사를 빌려 5월의 아픔을 대신 했다.

그해 12월1일 첫 선을 보인 '오기로 선생'은 '오기로'라는 이름 때문에 보안사의 외압에 의해 단 이틀 만에 '오목이 선생'으로 이름을 바꿔야 했다. '오기로'란 이름에 반발 심리(오기)가 들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지만 당시 신군부의 폭압적 정치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리 농촌이 효율적인 생산공간이 됩니다
농지와 농업용수의 개발, 관리를 통해 안정적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쾌적한 생활복지공간이 됩니다
농촌지역 내 유, 무형의 다양한 자원을 개발, 여메니터를 증진하고 소득기반의 확충, 경영회생프로그램 등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도시와 균형있게 발전하는 공간이 됩니다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확대 및 활성화와 농촌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 도농간의 상생의 기틀을 만들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어촌 종합정보포털 <http://www.nongchon.or.kr> 은퇴후 전원생활, 농지은행, 귀농귀촌, 그린투어, 주택정보, 지역투자정보 등 농어촌에 관한 알차고 요긴한 정보가 가득! 지금 클릭해보세요

KF 한국농촌공사 전남도본부 jeonnam.ekr.or.kr